5·18 진상 규명 대상 명확·세분화

특별법 시행 118일째에도 한국당 시간끌기로 조사위 출범 못해

기념재단, 내주 중 한국당 원내대표 만나 검증된 위원 선임 촉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국회의 직무유기로 넉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어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5·18 기념재단은 조사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촉구하고 위원 역사관 검증에 나선다.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참회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상규명 대상도 명확·세분화할 방침이다.

9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르면 다음 주중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역사관과 전문성이 검증된 조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 118일째(법 통과 316일째)에도 한국당이 위원(3명) 추천을 미루면서 조사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1명), 더불어민주당(4명), 바른미래당(1명)은 법 시행 전후 위원 추천을 마쳤다.

정치권 안팎에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락가락 행보로 시간을 끌어온 한국당에게 "위원 추천권 포기"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책임 회피로 조사위 사무처 구성·규칙 제정과 조사관·전문위원 채용도 연기가 불가피하다.

위원 추천이 끝나면 대통령이 임용령에 따른 결격 사유만 살피고 임명하는 절차만 남아있어 '각 정당의 추천 인사가 5·18을 제대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재단은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인사가 포함될 경우 '위원 선임 배경과 진상 규명 원칙을 밝히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이끌 9명의 역할과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단은 5·18 진상규명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해자 증언을 발굴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재단은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7·11공수여단·20사단 군인 10여 명과 면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1980년 5월18일부터 6월15일(암매장 사건 시점 고려)까지 계엄군 진압 경위, 시민 항쟁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사위에 전할 계획이다.

또 학계와 협업해 진상규명 각 과제·쟁점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 분석한 책자(직무편람 등)를 만들어 조사위에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채용된 조사관들을 상대로 5·18 배경지식과 군 기록 분석 방법 등도 교육한다. 재단은 앞서 국방부와 교육 방법·일정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단은 방송사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계엄군의 고백·자백을 이끌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방영키로 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조진태 재단 상임이사는 "특별법 9조 1항에는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활동을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위원회 출범이 더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고백을 이끌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집단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 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암매장 사건 등이다.

최남규 기자

겨울방학엔 스케이트가 최고 본격적인 겨울방학에 접어든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순천 청암대 교수들 이어 전 조교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져

순천 청암대학 보직자와 교수들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번에는 마모 전 조교가 강명운 전총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마 씨는 2015년 조교로 근무하면서 강 전 총장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해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정증언에서 당시 순천에 있었으면서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총장의 무고 교사 사건에 대한 마 씨의 진술은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강 전 총장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후 강 전 총장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교수 등 3명은 지난 5년 동안 파면·해임 등 18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학교 관계자 한 두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위에 연관돼 황당하다"며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뭘 배우겠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청암대 국 모 사무처장과 간호과 조모 교수, 피부미용과 윤모 교수는 지난 9월부터 개인정보비밀보호법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무고교사 재판과정 중 위증과 6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고 있는 마 씨는 범죄혐의가 추가돼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피해 교수들 중 1명은 지난해 말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됐지만 나머지 2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이 이를 거부해 복귀를 못하고 있다. 이들 교수 2명의 행정소송 결심공판은 10일 열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피해 교수들에 대한 반복적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학 측은 교수 3명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금 1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순천지원은 대학과 강 전 총장에게 여교수 2명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女 UFC선수 위협 브라질 강도, 처참히 맞아

브라질의 여성 UFC(종합격투기) 선수 폴리아나 비아나를 상대로 가짜 총으로 위협, 강도짓을 하려던 한 남성이 비아나의 저항으로 처참하게 두들겨 맞은 뒤 오히려 경찰을 불러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남성은 비아나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비아나는 지난 5일 밤(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가짜 총으로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한 남성의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UFC 외에 또다른 종합격투기인 MMA에서도 활동한 바 있는 26살의 비아나는 남성의 총기가 가짜라고 판단, 강도의 얼굴에 주먹과 니킥을 날리는 등 저항했다.

비아나의 공격에 강도는 쓰러졌고 비아나는 강도를 길바닥에 눕힌 채 시민에게 신고를 부탁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인을 넘겼다.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은 강도는 경찰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호송돼 치료를 받았다.

브라질에서는 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강도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식물인간 여성 출산에 美요양원 원장 사임

10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던 여성이 아기를 출산한 미 애리조나주의 요양원 원장이 물러났다고 CBS 등 미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피닉스의 해시엔다 헬스케어를 운영하는 빌 티몬스 원장의 사임이 만장일치로 수락됐다고 요양원측은 성명에서 밝혔다.

경찰은 10년 넘게 24시간 요양 보호를 받아온 여성이 아기를 출산한 것과 관련, 성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피닉스 경찰은 해시엔다 요양원의 모든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DNA 샘플 채취에 나섰다. 해시엔다 요양원의 한 대변인은 경찰이 8일 수색영장을 제시했으며 요양원은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29일 아기를 출산했다.

CBS의 피닉스 지사 KPHO-TV는 해시엔다 헬스케어 직원들은 이 여성이 출산을 할 때까지 그녀가 임신했던 것을 알지 못했다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요양원 이사회의 게리 오먼 부의장은 "이 끔찍한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떤 설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원의 모든 환자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해시엔다 헬스케어에서 환자들의 옷을 갈아입히거나 샤워시킬 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피닉스 경찰의 한 대변인은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해시엔다 헬스케어는 식물인간 여성의 아기 출산 이후 여성 환자 혼자 있는 방에 남성이 들어갈 때 다른 여성이 동행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英 히스로 공항, 드론 출몰 항공기 이륙 금지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에 이어 런던의 또 다른 관문인 히스로 공항에서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다고 BBC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유럽 최대 공항인 히스로 공항에 8일 오후 드론이 나타났다.

히스로 공항 대변인은 "공항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불편을 겪을 이용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BBC는 항공기 이륙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공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드론 출몰로 영국 공항 이착륙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트윅 공항에서 지난달 19일 오후 드론이 활주에 목격되면서 공항 일대가 마비됐다. 당시 개트윅 공항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용객들로 붐볐다.

드론 출몰로 항공기 이착륙이 36시간 동안 중단되면서 큰 혼란을 겪은 개트윅 공항은 500만 파운드(약 71억원)를 투입해 드론 제어 장비를 도입했다.

뉴시스